

‘2024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 만족도 연구

김미옥*

*충북연구원

e-mail:miok96@cri.re.kr

A Study on Participant Satisfaction with the "2024 Chungbuk Urban Farmer Project"

Mi-Ok Kim*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2025년에 실시될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개선을 위해, 2024년 사업에 참여한 도시민 736명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79.5%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평균 만족도는 4.1점(5점 만점)이었다. 만족 요인은 농업 분야 근로 만족과 근로시간의 적정성이었으며, 특히 농작업 실습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향후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과정 설계와 숙련도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1. 연구배경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만 75세 이하의 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희 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전문 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투입하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충북의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 임금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계절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공급 또한 불안정하여 국내 노동력을 최대한 유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은퇴한 유희 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노동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보려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이를 위해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참여한 736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한달 간 현장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StataSE17로 분석하였다.

3. 연구내용

설문응답자 73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60대(49.0%), 성별로는 여성(62.0%), 지역별로는 청주시(22.1%)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49.0%) > 50대(31.5%) > 40대(8.2%) 순이었으며 성별은 여성(62.0%) > 남성(37.8%) 순이었으며 설문응답자 지역은 청주시(22.1%) > 괴산군(14.4%) > 영동군(10.6%) 순이었다.

‘충북형 도시농부’의 근로 기간은 ‘4주 이상’이 53.1%로 가장 많았고, ‘1주 미만’이 11.3% 순이었다. 이를 통해 참여는 근로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형 도시농부’ 만족도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은 79.5%였으며, 전체 평균 수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형 도시농부’에 만족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농업분야 근로 만족’이 23.1%로 가장 높았으나 ‘근로시간 적정(23.0%)’, ‘근로시간 적정(1일 4시간)(22.5%)’이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농번기에만 근로가능’이 23.2%, ‘쉬는 시간 부족’ 20.7%, ‘농가소통 불만’이 15.9%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북형 도시농부’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작업 실습교육이 41.7%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시 농작업 실급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시사점

현재 도시농부의 교육은 기존의 도시농부와 신규 도시농부가 차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고도화하여 전문화되고 숙련된 현장 실습교육을 작물 전문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도시농부 중 지원자를 중심으로 주요 농기계 교육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농부 사업이 2025년에는 3년 차에 접어들어 성숙기에 진입하는 만큼, 기존의 평준화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북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가 주로 재배하는 작목이 상이한 특성이 있다. 북부는 특용작목과 노지작목, 중부는 도시근교로 노지작목 중심이지만 시설작목도 있으며 남부는 과수중심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과 투입시기,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농부는 숙련된 도시농부와 초급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농부에 참여하게 된다면 숙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문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평가를 하고 고평가를 받는 도시농부는 포상을 하거나, 농가에 근로 기간을 길게 배려하거나 배정 우선권, 교육혜택, 각종 복지 또는 문화 혜택 등 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